

SPRING WAVE

JUR



스프링웨이브 페스티벌 2007

국제다원예술축제

2007년 5월 4일 - 30일

주최: 스프링웨이브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20세기 후반 실험적 다원예술의 창의적 가치와 예술적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21세기를 끌어나갈 현대예술의 새로운 형태로 다원예술이 재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대예술의 새로운 개념과 형태를 소개할 국내 창작 현장이 요구되었고 그 요구에 따라 스프링웨이브 페스티벌이 탄생하였습니다.

스프링웨이브 페스티벌은 현대무용, 연극, 미술, 음악, 영화, 퍼포먼스 등 현대예술 전 장르 간의 상호 교류를 근간으로 하는 실험적 창작예술제로서 매년 5월, 전세계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국제다원예술축제입니다.

2007년, 그 첫해를 맞이하여 윌리엄 포사이스의 작품을 개막으로 국내외 15개의 다원예술작품이 서울 전역 7개의 장소에서 한달 동안 펼쳐집니다. 스프링웨이브 페스티벌은 ‘새로운 시도와 형식’을 발굴하고 제작하며 전파하는 역동적인 현대예술제로서 한국이 21세기 현대 예술의 아시아 허브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Springwave Festival 2007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Arts Festival

4-30 May 2007

The creative and aesthetic qualities of the experimental interdisciplinary work began to be recognized since the late 20th century, and now is the time to reassert its significance as the leading contemporary art form of this century. In Korea, there has been a need for a catalyst for these new ideas and art forms could be created and contested, and it is in this context where Springwave Festival has been initiated.

Grounded on the vast network of diverse art forms, Springwave Festival is an international experimental arts festival to be held in every May, covering genres as diverse as contemporary dance, theatre, visual arts, music, film and performance.

In 2007, the first Springwave Festival invites fifteen interdisciplinary art works from Korea and abroad, and stage them on seven different venues in Seoul for about a month, openning with William Forsythe's work. In this way, Springwave Festival attempts to nurture new artistic attitudes and forms, and play a focal point for Asian contemporary art production.

2

다원

스프링웨이브는 현대무용, 연극, 미술, 음악, 영화, 퍼포먼스 등 현대예술 전 장르간의 상호교류를 근간으로 하는 다원예술의 창의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예술적 중요성을 전파하는 현대예술제입니다.

자체제작 & 공동제작

스프링웨이브는 기존의 페스티벌과 달리 해외 유수의 페스티벌과 공동제작 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신진작가들의 작업을 자체적으로 제작합니다. 이를 통해 스프링웨이브 페스티벌은 국제적 차원의 다원예술축제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현대예술의 선구자적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국제적 네트워크

국제적인 다원예술기관 및 페스티벌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작가교류, 공연교류, 공동제작 그리고 워크숍, 심포지엄 등을 공동 기획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산된 아이디어들은 자체제작이나 공동제작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물로 재탄생될 것이며, 이러한 유통 과정의 반복은 결국 예술세계에 절대적 에너지를 불어넣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국내작가 발굴

스프링웨이브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대예술에 대한 이해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상황에 진보적인 실험작품을 선보임으로써, 미래의 예술세계를 이끌어 나갈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고, 국제적 수준의 전문화된 제작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국내 작가를 배출해내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Interdisciplinary

Springwave is a contemporary arts festival, which promotes the importance of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in contemporary dance, theatre, visual arts, music, film and performance.

Production & Co-production

Springwave strives to collaborate with internationally renowned festivals and produce the works of emerging artists from all over the world. Through this effort, it aims to establish its identity as a cutting-edge supporter of contemporary art and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interdisciplinary arts festival.

International Network

Its long-term plan includes building a network of international festivals and institutions through artistic exchanges, co-productions, workshops and collaborative symposiums. It will then provide opportunities to turn interesting ideas to productions and co-productions of new works. Ultimately, this process will play as a catalyst for the new kinds of art.

Discover

Springwave aims to create a stimulating environment for young Korean artists by introducing cutting-edge works from abroad to the Korean art world and building a system for professional production. By this, Springwave tries to discover and foster more Korean artists as internationally recognized talents.

축사

올해 첫 회를 맞는 새로운 봄바람 스프링웨이브 페스티벌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술 장르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현 시점에서, 스프링웨이브 페스티벌은 다원예술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는 국제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스프링웨이브 페스티벌이 한국과 세계의 예술전반에 갖는 의미는 실로 각별하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행사를 통해 다원예술의 신선한 물결을 여러분들이 한껏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새로운 예술정책 창조의 일환과 상통하는 스프링웨이브 페스티벌. 그 뜻 깊은 행사의 시작에 우선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국제적 차원으로 새롭게 개최되는 다원예술축제인 스프링웨이브 페스티벌은 아르코예술극장의 공동기획작인 로메오 카스텔루치의〈Hey girl!〉, 홍성민의 〈오페라의 요령〉을 통해 그 의미를 더 힘있게 높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아티스트간의 교류, 장르간의 경계 넘어서기로 현대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스프링웨이브 페스티벌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며 공감 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Greetings

I wish to congratulate the very first opening of Spring-wave Festival scheduled to be held in May of this year. It is without a doubt that with the opening of Spring-wave Festival, the performing arts will take the next step into the future by breaking down the barrier of genres and leading the way for further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between different artists and different genres of the arts. For the whole month of May, Springwave Festival will offer abundant opportunities for everyone to enjoy and rediscover the joy of art that defies our expectations. Thank you.

— Minister of Culture & Tourism
Kim Myung Gon

Springwave Festival shares a view to arts with Korean Arts Council in the sense that they both want to find new arts policy. I am very much honored to be able to congratulate its grandiose beginning. It is also a great pleasure to be able to co-host Romeo Castellucci's *Hey girl!* and Hong Sung-Min's *Phantom of the Operalara* with us. Hope to have a great success as a site for providing meeting places of interdisciplinary artists from abroad and Korea. Thanks.

— Chairman, The Arts Council Korea
Kim Byong-Ik

목차

■	로메오 카스텔루치/ 소시에타 라파엘로 산지오 Romeo Castellucci / Societas Raffaello Sanzio	4
▼	라이문트 호게 Raimund Hoghe	6
▼ +	윌리엄 포사이스 William Forsythe	8
■ + ☆ ●	홍성민 Hong Sung-Min	10
※ ●	한 로우 Hahn Rowe	12
■ ▼	제롬 벨 Jérôme Bel	14
▼	김형민 / 허쉬 Kim Hyoung-Min / Hush	16
▼ ☆ +	나디아 로로 Nadia Lauro	18
☆ + ※	김상화 Kim Sang-Hwa	20
▼ +	크리스티앙 리쑤 Christian Rizzo	22
※ ☆	어어부 프로젝트 Uh Uh Boo Project	24
☆ +	티노 세갈 Tino Sehgal	26
▼ ※ + ☆	안은미컴퍼니 Ahn Eun-Me Company	28

Contents

몬순 프로젝트 Monsoon Project	30
UCIRA 프로그램 UCIRA Program	31
크레딧 Credit	32
위치안내 Venue Information	33

- ▼ 무용
- + 인스톨레이션
- 연극
- * 음악
- 미디어 아트
- ☆ 퍼포먼스

Romeo Castellucci / Societas Raffaello Sanzio

Hey Girl!



로메오 카스텔루치 / 소시에타 라파엘로 산지오

헤이 걸!

5.24 목 / 5.25 금 8pm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Romeo Castellucci / Societas Raffaello Sanzio

Hey girl!

5.24 Thu / 5.25 Fri 8pm

[R 50,000 won / S 40,000 won / A 30,000 won]

Arko Arts Theater, Main Hall

왜곡과 변신, 괴성과 독설, 충돌과 폭발, 잔혹의 극단에서 만나는 절대미학의 환몽적인 충격을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로메오 카스텔루치는 1980년 소시에타 라파엘로 산지오[Societas Raffaello Sanzio]를 창립하여, 고전적인 연극적 요소로부터 최첨단의 테크놀로지까지를 포용하며, 강력한 이미지와 사운드를 창조한다. 그 결과, 그의 작업은 텍스트가 이성애 고하는 문학적 감동보다는, 직접적으로 인간의 가슴을 파고드는 충격적인 감동을 던져준다.

4 5
《헤이 걸!》은 상징적인 사물들과 이질적인 동작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대사도 줄거리도 없는 하나의 제스처의 드라마이다. 잔-다르크의 은검, 샤넬 No.5 향수병, 거울, 흑인여자, 건장한 남성들의 그림자... 이 작업은 서로 다른 형상들이 부딪혀서 만들어내는 메아리에 귀 기울이며 감상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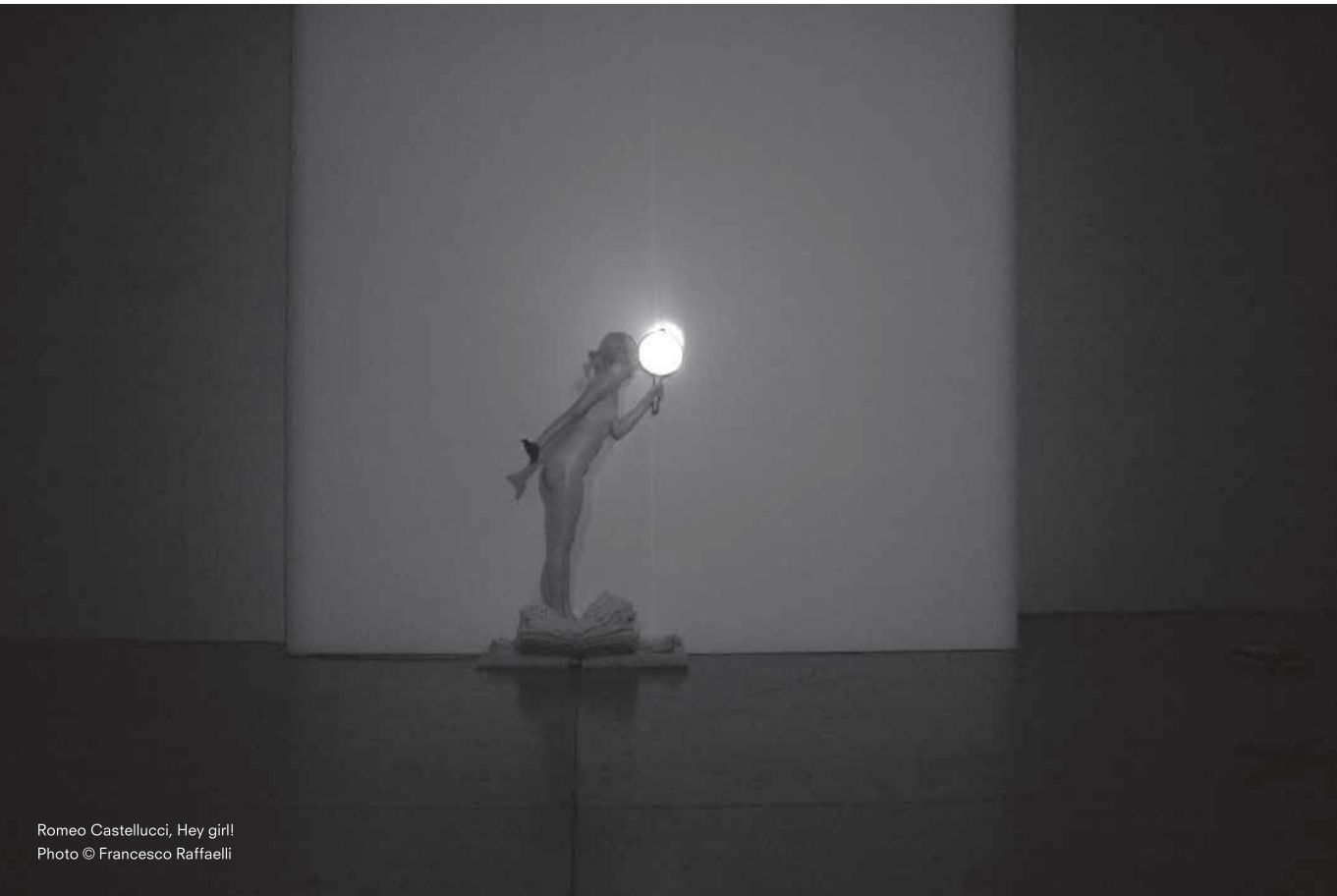
로메오 카스텔루치는 실험적인 연극으로 유럽 연극상과 이탈리아 프레미오 UBO, 그리고 2000년 프랑스 파리 비평가 대상을 받으며, 미래를 책임질 연출자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The Raffaello Sanzio theatre collective are probably the most radical exponents of nuevo teatro in Italy, seeing theatre as a form of art that unites all other forms of art and thus appeals to all of the audience's senses. Coming originally from the visual arts, Romeo Castellucci drafts out impressive associative installation and acoustic spaces that are never fully decipherable.

Hey girl! is a project about movement and about gesture. In the end it will be a kind of dance. A series of pictures strung together but seemingly unconnected. One might say, a revue of acts that starkly reveals aspects of human relationships. A portrait put together out of the vast archive of partly forgotten gestures of the West.

With
Silvia Costa, Sonia Beltran Ferrer
Original Music
Scott Gibbons
Statics and Dynamics
Stephan Duve
Lighting Technique
Giacomo Gorini, Luciano Trebbi
Sculptures for Scene
Plastikart, Istvan Zimmermann
Production Assistant
Eugenio Resta
Organization
Gilda Biasini, Cosetta Nicolini
Promotion
Benedetta Briglia
Administration
Elisa Bruno, Michela Medri
Administrative Advice
Massimiliano Coli
Production
Odeon Theatre de l'Europe con
Festival d'Automne (Paris);
Steirischer Herbst (Graz);
Le Maillon Theatre (Strasbourg);
De Singel (Antwerpen);
Productiehuis Rotterdam,
Rotterdamse Schouwburg
(Rotterdam); Cankarjev dom
(Ljubljana); Trafo House of
Contemporary Arts (Budapest)

스프링웨이브 초청작
스프링웨이브·아르코예술극장 공동기획



Raimund Hoghe

36, Avenue Georges Mandel



라이문트 호게

애비뉴 조르주 멘델 36번지

5.11 금 8pm / 5.12 토 6pm

[전석 3만원]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Raimund Hoghe

36, Avenue Georges Mandel

5.11 Fri 8pm / 5.12 Sat 6pm

[all tickets 30,000 won]

Seoul Arts Center, Jayu Theater

‘애비뉴 조르주 멘델 36번지’는 2007년 스프링웨이브와 아비뇽 페스티벌이 공동 제작하여 한국에서 초연되는 라이문트 호게의 솔로작업이다. 그의 작업에 등장하는 일상적인 사물들, 단어들, 음악들(팝송, 대중가요, 클래식... 등)은 자신의 경험에 의한 주관적 기억과 역사가 남긴 사회정치적 정의를 통해 재정비된다. 미니멀한 무대, 라이문트 호게의 구부러진 등, 단순한 때로는 괴이한 움직임과 의미 모를 오브제들의 등장은 새로운 공연형식으로 아름다움[beauty]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한다. 1977년, 파리의 36 애비뉴 조르주 멘델에서 생을 마감한 마리아 칼라스. 그녀의 음성은 당신에게 어떤 순간을 떠오르게 하는가. 라이문트 호게는 여러분을 그 순수의 시간으로 초대한다.

Raimund Hoghe began his career as a journalist in the German weekly newspaper *Die Zeit*. From 1980 until 1990 he worked as dramaturge for Pina Bausch's Tanztheater Wuppertal. Since 1989 he has been working on his own theater pieces and has been awarded several prizes including the Deutscher Produzentenpreis für Choreografie in 2001.

36, Avenue Georges Mandel is his new work – after several pieces with different dancers it will be his first solo since seven years. 36 Avenue Georges Mandel in Paris was the last home of Maria Callas and she died in this place 1977. Thirty years later Raimund Hoghe will remember not only her beautiful voice – the piece will also be about other people and his own story and desire.

6

7

라이문트 호게는 10여 년간 피나 바우쉬(Pina Bausch)의 드라마투르기로 활동해 왔으며, 1989년부터 솔로활동을 펼치고 있다. 독일 프로듀서가 수여하는 안무가상을 수상한 그는 새로운 형태의 공연예술을 선보임으로써 급격한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다.



Photo © Rosa Frank

William Forsythe

Scattered Crowd

윌리엄 포사이스

흩어진 군중들

5.4 금 / 5.5 토 1pm-6pm

[2만원]

로댕갤러리

William Forsythe

Scattered Crowd

5.4 Fri / 5.5 Sat 1pm-6pm

[20,000 won]

Rodin Gallery

세계적으로 선두적인 안무가, 윌리엄 포사이스의 작품이 드디어 한국에 선보인다. 육천여 개의 풍선들이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교향곡 <흩어진 군중들>. 마치 소리의 바다 위를 떠도는 구름 같다. 이 풍경을 바꾸고 싶은가? 아니면, 이 꿈 같은 세상에 부동의 조각처럼 머물고 싶은가? 현대무용 안무, 자, 이제 여러분의 몫이다.

<흩어진 군중>의 깨지기 쉬운 세상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현실을 반영한다. 우리는 환경에 반응하고, 스스로를 적응시키고, 혁신시킨다. 시간, 장소, 거리... 모든 것은 불변의 움직임 안에 있다. 우리들이 바로 흩어진 군중들이자. 바람에 의해 분산되고 흩어진 군중들.

윌리엄 포사이스의 작업은 발레를 전통적 방식에서 21세기의 역동적인 예술의 형태로 유도한다. 그는 지난 40년간의 국제 무대를 누비면서 퍼포먼스 인스톨레이션, 공공장소에서 인터랙티브 프로젝트, 멀티미디어, 비디오와 영화 제작과 같은 다른 여러 가지 장르를 선보여 왔다. 이러한 다양한 작업들은 새로운 영역과 장르로 뛰어든 것이 아닌, 안무의 연장선에 있어 점차 진화되고 확장되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Four thousand white balloons, suspended in a billowing wash of sound; an air-borne landscape of relationship, of distance, of humans and emptiness, of coalescence and decision. In the gorgeous, breathless space that is choreographer William Forsythe's *Scattered Crowd*, the viewer inhabits and alters, through their stillness or speed, their sense of proportion and time, the configurations that make up this constantly shifting, ecstatic world.

— Dana Caspersen

8

9



Photo © Julian Gabriel Richter

스프링웨이브 초청작

Installation
William Forsythe
Music
Ekkehard Ehlers
Sound
Sylvain Lafourcade
Production Director
Julian Richter



Hong Sung-Min *Phantom of the Operalara*

홍성민

오페라의 요령

5.28 월 / 5.29 화 8pm

[전석 1만원]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Hong Sung-Min

Phantom of the Operalara

5.28 Mon / 5.29 Tue 8pm

[all tickets 10,000 won]

Arko Arts Theater, Main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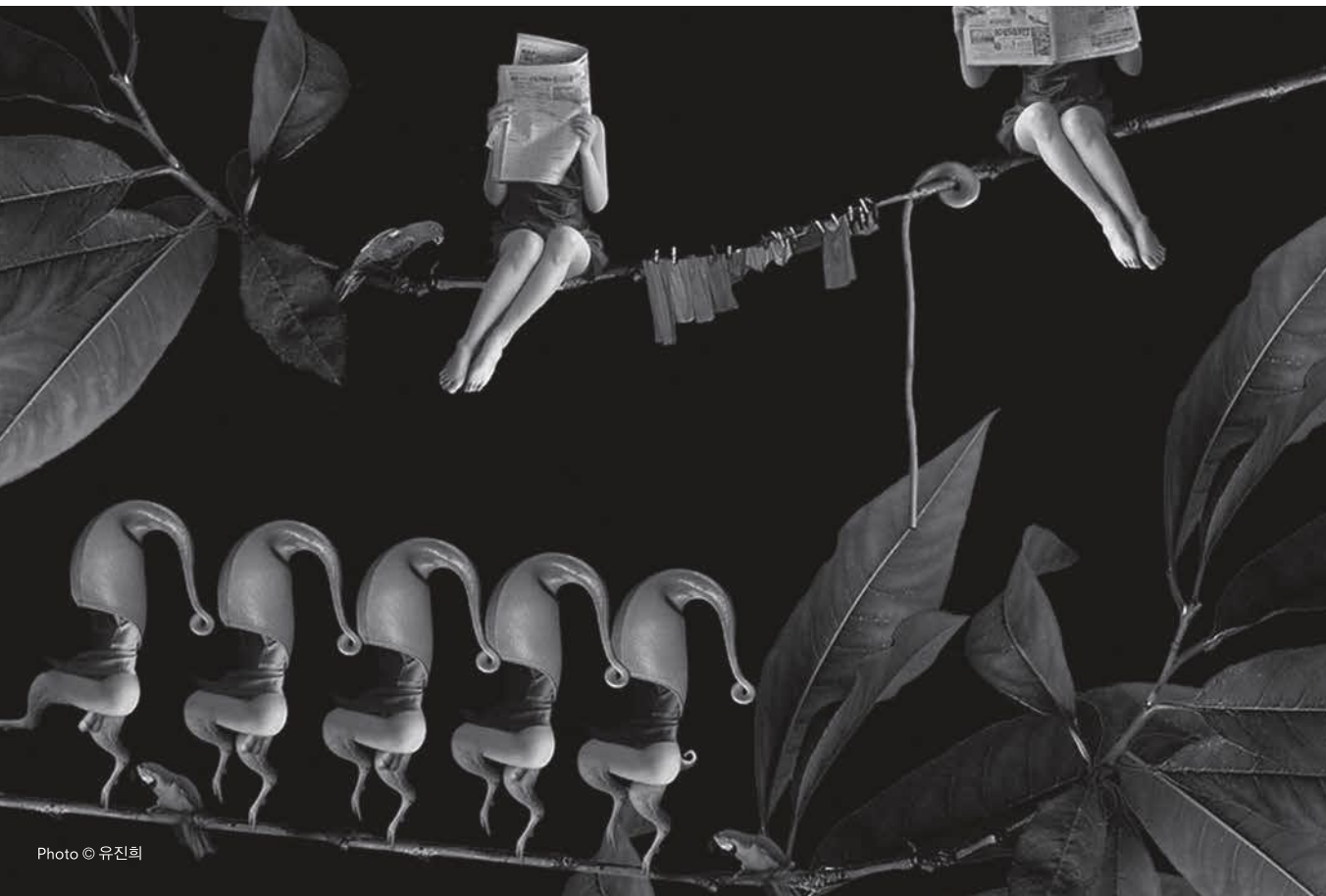
연극과 인스톨레이션 사이의 개념적 긴장감을 교묘하게 지켜나가는 연출가 홍성민은 스프링웨이브 페스티벌과 함께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을 하나의 오브제로 사용하여 변형하는 시도를 한다. 그의 신작 <오페라의 요령>은 영상, 춤, 행위, 라이브 음악과 같은 다양한 장치의 비선형적 시나리오로 진행되는 장소특정적[site-specific] 작업으로 전통적인 극장의 구조를 전복한다.

홍성민은 쇼펍(쌈지길)을 공연장으로 바꾸어 버리거나, 인공폭포를 배경으로 ‘판피린걸’ 과 ‘우루사 꿈’ 이 등장하는 오페라 립싱크 공연을 통해 한국의 미술계와 공연계에 신선한 입김을 불어넣었다. 동양/서양, 고급/통속, 전통/현대 문화의 대칭적 요소들을 교란시키며, 복잡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미학을 제시하고 있다.

Hong's production of play is not something that are 'nearby', 'easy to understand' nor 'familiar' but rather it tries to reveal the aspect of our unconscious of unrecognized world. Just as good as non-linearity, if there is an important fact in his play, it is the restoration of world in terms of similarity relationship. In other words, it replaces a method of reproduction in political sense of semantic reality by visual poetic from global potential. Basically, a poem follows the path of 'similarity' and produces analogy of universe. It is the same with images. Within in this area, it is close to classic and pop, high classes culture and popular culture, a record and tradition, insanity and rationality, beauty and confusion.

10

11



기획/연출

홍성민

컨셉 및 영상

유진희

안무

서현석, 홍성민

조연출

황우성, 이지만

의상

홍서연, 김은경

출연

이지현, 임혜진, 정인지, 오상훈 외

70여명의 비 공연계 전문인

스프링웨이브 제작

스프링웨이브 · 아르코예술극장

공동기획

Direction

Hong Sung-Min

Conception and Image

Yu Jin-Hee

Choreography

Seo Hyeon-Seok,

Hong Sung-Min

Assistant Direction

Hwang Woo-Sung, Lee Ji-Man

Costume

Hong Seo-Yeon, Kim Eun-Kyung

Performers

Lee Ji-Hyeon, Lim Hye-Jin,

Jung In-Ji, Oh Sang-Hoon and 70

amateur performers

Hahn Rowe

Project Nong-Ak



한 로우

프로젝트 농악

5.15 화 / 5.16 수 8pm

[전석 2만원]

LIG 아트홀

Hahn Rowe

Project Nong-Ak

5.15 Tue / 5.16 Wed 8pm

[all tickets 20,000 won]

LIG Art Hall

뉴욕 일렉트로닉 음악 언더그라운드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엔지니어이자 연주자인 한 로우가 농악의 리듬과 템포를 디지털 기법으로 실시간 믹싱하는 라이브 공연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한다.

이미 많은 음악인들에 의해 현대음악과 전통음악의 접목은 시도되어왔으나, 안타깝게도 다수의 작업들은 현대음악의 형식에 전통음악의 기본 요소들이 지배당하거나, 단순한 병치(並置)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 농악>에서 농악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유연하고 탄력적인 템포, 동적인 변화, 리듬의 구조적인 변형)이 현대적으로 구체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전자환경에서 스스로 자생하는 의미가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또한, 캐롤 김[Carole Kim]과의 라이브 비디오 작업은 뉴 미디어 라이브 연주와 함께 시청각의 새로운 교감을 이루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한 로우는 90년대 초, 그룹 휴고 랄고[Hugo Largo] 이후에 모비[Moby], 데이비드 번[David Byrne], 알.이.엠[R.E.M]의 멤버로 활동하였다. 현재 그는 뉴욕에 거주하며, 영화와 텔레비전 영상음악에 새로운 시도를 한다.

Project Nong-Ak is collaboration between Korean American composer/sound artist Hahn Rowe and practitioners of the Korean folk music tradition of Nong-ak. The intent of this project is to retain the essence of the modern incarnation of Nong-ak music and allow it to freely extend itself into a contemporary electronic environment. Digital audio processing, electronic sensors, and multiple triggers will all be utilized in the desire to expand the tonal palette of the traditional Nong-ak instrumentation. The additional visual component of live video will be provided by New York artist Carole Kim. It will immerse the music in a hypnotic and sympathetic light environment.

12

13



스프링웨이브 제작
스프링웨이브 · LIG 아트홀
공동기획

작곡
한 로우
비주얼 아티스트
캐롤 김
한국 타악기 연주자
유승표, 정현아, 최준일, 장재호

Composer
Hahn Rowe
Visual Artist
Carole Kim
Korean Percussionists
Ryu Seung-Pyo, Rhyta, Choi
Joon-Il, Chang Jae-Hyo

유쾌한, 그러나 진지한 90분간의 대화

Jérôme Bel

PK and Myself



제롬 벨

PK와 나

5.4 금 8pm / 5.5 토 6pm

[전석 3만원]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Jérôme Bel

PK and Myself

5.4 Fri 8pm / 5.5 Sat 6pm

[all tickets 30,000 won]

Seoul Arts Center, Jayu Theater

친밀한 현대무용계의 악동 제롬 벨. 이미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그는 인간신체의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상호 텍스트적인 메타 신체들에 결합시키는 형이상학적인 연출가이자 안무가이다. 태국의 전통 무술가인 피켓 클런천[Pichet Klunchun]을 만나 2007년 또 다른 대화를 시작한다.

지난 해, 방콕에서 제롬 벨은 궁중 무용 '콩'[Khon]을 전수 받은 유일한 안무가 피켓 클런천을 만난다. 그들은 제롬 벨의 노트북을 사이에 놓고 마주 앉아 90분간의 대화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그 동안 끊임없이 웃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제롬 벨은 개인적인 대화에서 시작하여, 춤과 직업, 삶과 죽음, 사회와 국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에 이르기까지의 진지한 내용들을 그의 특유의 연출법으로 유쾌하게 이끌어 간다. 태국 궁중 무용은 화려한 전통적인 옷과 마스크의 부재 속에서 더 부각되며, 두 다른 문화가 만들어내는 미학적, 사회적 차이는 연극적이고 무용적인 실제보다 더 리얼한 하나의 다큐멘터리로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Jérôme Bel presents a captivating performance as the result of his meeting in Bangkok with a young Thai traditional dancer, Pichet Klunchun, 34 years old, specialist of 'Khon' style in royal dances. Two artists who are worlds apart, but that humour, sensibility and a great open-mindedness bring together in a most original performance. It is a 90 minutes dialogue in English. Seated cross-legged face to face, each one asks questions to the other one on different subjects such as dance, work, religion, death... Some very problematic notions such as the euro-centrism, the inter-culturalism, or the cultural globalization, are at stake all along the piece.

14

15



Photo © R. B.

스프링웨이브 초청작

Choreographer and Dancer
Jerome Bel
Dancer
Pichet Klunchun



Kim Hyoung-Min / Hush *Call Back*



김형민 / 허쉬

콜 백

5.11 금 8pm / 5.12 토 5pm

[전석 2만원]

LIG 아트홀

Kim Hyoung-Min / Hush

Call Back

5.11 Fri 8pm / 5.12 Sat 5pm

[all tickets 20,000 won]

LIG Art Hall

LDP 무용단에서 배출한 안무가 김형민은 현재 독일 베를린 샤우뷔네 극장의 예술감독인 토마스 오스터마이어 [Thomas Ostermier], 콘스탄자 마크라스[Constanza Macras]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여 작업해 오고 있다. 독일 언론은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엄청난 에너지와 격렬한 움직임을 극찬하며, 그녀의 느림과 빠름, 정적과 파괴력 등의 대조적 효과와 긴장된 화합능력에 감탄의 글을 아끼지 않고 있다.

Kim Hyoung-Min has been working with Thomas Ostermier, artistic director of Shaubunne in Berlin, and Constanza Macras. She was eagerly admired by German press, which pointed out her exceptional dynamics and unique movement that integrates contradictory aspects and tensions between the slow and the speedy, stillness and destruction.

김형민의 신작 <콜 백>은 혼돈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인간의 육체에서 일어나는 우연적이고 반복적인 파괴와 본능적 감각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동물적 이미지에 집착한다. 이를 털어내고 쌓아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남는 진수는 무엇인지 기대해본다.

Her latest work *Call Back* starts from the chaos. It focuses on the seemingly unmediated, compulsive and destructive manifestations of the human body, and the images of instinctive animal desire.

16

17

<콜 백>이 공연되는 11일, 12일에 LIG 아트홀 로비에서 김형민이 출연하고 야레트 야레트 그라딩거[Jared Gradinger]가 감독한 필름 <Fights (1,2,3)>이 상영된다. '부러짐'이라는 이미지로 작업한 <콜 백>과, '싸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한 <Fights (1,2,3)>. 김형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이 두 작품은 시작점도 연출자도 다르지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함께 보는 것이 더욱 흥미로울 것이다.

안무
Hush
디렉터
김형민
출연
김형민, 안나 루이스 레케,
알레시오 카스텔루치
음악
알레시오 카스텔루치

Choreography
Hush
Director
Kim Hyoung-Min
Performers
Kim Hyoung-Min, Ana-Luise
Recke, Alesseio Castellacci
Composer
Alesseio Castellacci

Fights (1,2,3)
아이디어와 컨셉
야레트 그라딩거
출연
질 에머슨, 야레트 그라딩거,
김형민, 안젤라 슈보트
연출 및 편집
야레트 그라딩거
음악
여러 작가

Fights (1,2,3)
Idea and Concept
Jared Gradinger
Made and Performed by
Jill Emerson, Jared Gradinger,
Kim Hyoung-Min, Angela
Schubot
Directed and Edited by
Jared Gradinger
Music by
Various artists

스프링웨이브 제작
스프링웨이브 · LIG아트홀 공동기획

LIG ART HALL



Nadia Lauro

I hear voices



나디아 로로

소리를 듣다

5.9 수 - 5.10 목 11am - 6pm [1만원]

5.3 목 - 5.30 수 11am - 6pm [무료]

토탈 미술관 (월요일 휴관)

Nadia Lauro

I hear voices

5.9 Wed - 5.10 Thu 11am - 6pm [10,000 won]

5.3 Thu - 5.30 Wed 11am - 6pm [free of charge]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s

(closed on Mondays)

현대무용, 퍼포먼스, 조경, 패션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프랑스 무대설치예술가, 나디아 로로는 토탈미술관에 유기적인 사색의 공간을 만든다. 짙은 회색 야생동물 가죽으로 뒤덮힌 바위들, 그 사이로 흘러나오는 소음들, 그리고 프랑스 안무가 라티파 라비씨[Latifa Laabissi]와 함께 기이한 동작을 보이는 20명의 한국 퍼포머들이 관객의 시선을 붙잡는다.

나디아 로로의 무대설치는 팝[pop]적이면서도 미니멀하고, 자극적이면서도 모험적인 공간이다. 관객들에게 무대는 더 이상 인위적 공간이 아니다. 즉, 관객의 시선과 무대의 시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육체와 소리를 포착하며 넘실거리는 파도의 물결의 장으로 빨려 들어간다.

나디아 로로는 현대무용 안무가들과 함께 작업하였으며, 조경 건축가인 로렌스 크레멜[Laurence Crémel]과 함께 자연경관 속의 인스톨레이션과 도시형 가구들을 제작하기도 했다. 또한 카타하리[Kattahari]에서 크리스찬 디올의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패션쇼를 위한 무대를 디자인하였다.

5월 3일 '소리를 듣다'를 위해 열리는 워크숍은 나디아 로로의 무대공간에서 놀이 혹은 무용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육체의 움직임을 연구한다.

워크숍/리허설
5.3 목 2pm - 4pm
공연
5.3 목 4pm
장소
토탈미술관

안무가
라티파 라비씨
모집인원
20-30명

시각예술, 퍼포먼스, 무용, 연극, 건축 등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과 성악을 전공한 혹은 기초적인 발성법을 익힌 사람 3명

스프링웨이브 제작

Conception and Direction
Nadia Lauro
Choreographic Collaboration
Latifa Laabissi
Music
Boris Hauf
Light
Yannick Fouassier



Kim Sang-Hwa

Light and Shadow

김상화

빛과 그림자

5.19 토 8pm

[무료]

이태원 지하건물

Kim Sang-Hwa

Light and Shadow

5.19 Sat 8pm

[free of charge]

Itaewon, an underground room

퍼블릭 오브제, 퍼포먼스, 전시기획, 시각디자인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작업하는 김상화는 가슴시각개발연구소에서 공공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06년 그녀는 기계체조, 설치미술과 인디음악을 크로스 하는 작업 <목이 메어>를 소개하였는데, 이는 체조의 ‘링’ 동작과 시적인 텍스트, 영상, 음악의 감정적 흐름이 교차하는 새로운 형식의 작품으로 주목 받았다.

김상화는 DJ 최정진과 함께 또 다른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시도하는데, 이 신작 <빛과 그림자>는 몇 개의 오브제, 빛과 소리의 조합으로 공간을 이끌어가는 간결한 시극이 될 것이다.

Kim Sang-Hwa works with various mediums and means such as public object, performance, curating and graphic design. She is working on public projects in Gasum Visual Lab. She presented *Choked with Tears* in 2006, which attracted public attention as a new form of work that intertwined gymnastics, installation, poetic text, media art and music.

With DJ Choi Jeong-Jin, she continues her experiment in her new work *Light and Shadow* by transforming a space into a poetic theatrical performance with a couple of objects, lights and music .



디렉터

김상화

음악

최정진 외 1명

스프링웨이브 초청작

Director

Kim Sang-Hwa

Composer

Choi Jeong-Jin and 1 person

Christian Rizzo

100% polyester, objet dansant n°40

크리스티앙 리쥬

100% 폴리에스테르, 춤추는 오브제 No.40

5.9 수 - 5.19 토

평일 4pm - 8pm / 주말 1pm - 5pm

[무료]

LIG 아트홀 L 스페이스

Christian Rizzo

100% polyester, objet dansant n°40

5.9 Wed - 5.19 Sat

weekday 4pm - 8pm / weekend 1pm - 5pm

[free of charge]

LIG Art Hall, L Space

록 가수, 현대미술가, 패션디자이너, 작곡가 이자 안무가인 크리스티앙 리쥬. 누가 그의 상상력을 막을 수 있을까.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재미있는 놀이를 하듯, 그는 움직이는 모형을 통한 건축적 공간, 오브제와 의상을 통한 변장술, 모방과 변형을 통한 체면적 연출 등을 시도한다.

〈100% 폴리에스테르, 춤추는 오브제 No.40〉에 육체는 부재한다. 차가운 공기의 움직임을 따라 퍼지는 전자음, 허공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선풍기들, 천장에 매달린 긴 줄, 그 끝에 매달려 보일 듯 말 듯 움직이는 기형적인 두벌의 의상,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빛과 그림자 사이의 우아하고 섬세한 최면적 명상의 공간. 12분 동안 계속되는 이 공기와 오브제의 춤은 환상적인 듀오[duo]가 되어, 관객들로 하여금 무의식적인 상상력을 유도하기도 하고, 부재[absence]에 대한 명상의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다. 크리스티앙 리쥬는 현재 '아소시옹 프라질'[Association fragile]을 창단하여 활동하고 있다.

The origin of the project *Objet dansant à définir n°...* comes from the desire to be able to present a dance from which the body-material is missing. Christian Rizzo wanted to make visible the 'dancing' idea that a contemplation/hypnosis time would lead to an imaginary reasoning and/or a reflection on absence, also the desire to bring together his principal activities (movement, costume, sound) into one project. *Objet dansant à définir n°...* is a project relying on the fragility and the simplicity of the proposition. Then, it seems important to him to recontextualise 'object' every other performance. Thus, 'hanging/time/progress/material' are modified according to the architectural place.

22

23



Uh Uh Boo Project *Home Fashion*

어어부 프로젝트

홈 패션

5.18 금 8pm / 5.19 토 5pm

[전석 2만원]

LIG 아트홀

Uh Uh Boo Project

Home Fashion

5.18 Fri 8pm / 5.19 Sat 5pm

[all tickets 20,000 won]

LIG Art Hall

말이 필요 없는 어어부 프로젝트의 행로는 흥미진진하다. 2005년 내한한 피나 바우쉬[Pina Bausch]의 작품 <러프 컷>, 박찬욱 영화 <복수는 나의 것>, 안은미 작품에 이르기까지 어어부의 협업 음악은 우리 귀에 친숙하다.

한국적 ‘아방가르드 밴드’ 어어부 프로젝트는 전통 악기를 포함한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여 관에 박히지 않은 새로운 소리를 섭렵한다.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시적인 방법으로 풍자하는 그들은 80년대의 영국의 팝 음악, 독일 표현주의 음악, 그리고 한국의 전통음악에서부터 70년대 대중가요에 이르기까지, 현대음악의 비트와 고전주의 리듬을 너무나도 태연스럽게 한자리에 늘어놓는다. 그들은 자생하는 이끼들 마냥 소리 없이, 그들만의 예술세계를 번식시키고 있다. 어어부 프로젝트의 신작 <홈 패션>을 기대해본다.

Since a debut in 1994, Uh Uh Boo Project has been made a name for one of the most eccentric bands in Korean contemporary music scene. They are unconventionally grasping for various sounds of different instruments, including traditional instruments. The lyrics are difficult to decipher as an avant-garde poem, and sometimes their expressions are almost eerie when they metaphorically talk about harsh realities. With three regular albums and music in many films, the band has been gaining their reputation for presenting socio-political messages in satirical as well as poetic way. Recently, the band's songs were used in Pina Bausch's choreography in 2002 and 2005.

24

25



스프링웨이브 초청
스프링웨이브, LIG 아트홀 공동기획

참가자
백현진, 장영규, 이철희, 방준석,
이병훈

Performers
Baik Hyun-Jhin, Jang Young-Gyu,
Lee Chul-Hee, Bang Jun-Suk,
Lee Byung-Hoon

LIG ART HALL

Tino Sehgal

Instead of allowing some thing to rise up to your face dancing bruce and dan and other things

티노 세갈

무언가를 보여주기 대신에 브루스와 댄을 춤추거나
혹은 다른 무언가를 하시오

5.9 수 - 5.10 목 11am - 6pm [1만원]

5.8 화 - 5.30 수 11am - 6pm [무료]

토탈 미술관 (월요일 휴관)

Tino Sehgal

Instead of allowing some thing to rise up to your
face dancing bruce and dan and other things

5.9 Wed - 5.10 Thu 11am - 6pm [10,000 won]

5.8 Tue - 5.30 Wed 11am - 6pm [free of charge]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s
(closed on Mondays)

2007년 5월 토탈미술관 (11am-6pm), 매 3시간마다 어느 누군가에 의해 숫자의 전환이 반복되면서 티노 세갈의 작업 <무언가를 보여주기 대신에...>가 완성된다. 이 작업의 제목에서 드러나듯, 티노 세갈의 퍼포먼스는 댄 그레이엄(Dan Graham)과 브루스 나우먼(Bruce Nauman)의 작업에 등장하는 움직임의 캡처들을 기본으로 한다. 만약 댄 그레이엄(Roll, 1970)이 브루스 나우먼의 작업(Wall-Floor Positions, 1968)에서 카메라의 비가시성을 비판한다면, 티노 세갈은 이 비판을 다시 비판한다.

[...] I consider communism and capitalism as two versions of the same model of economy, which only differ in their ideas about distribution. This model would be: the transformation of material or – to use another word – the transformation of ‘nature’ into supply goods in order to decrease supply shortage and to diminish the threats of nature, both of course in order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Both the appearance of excess supply in western societies in the 20th century, as well as of mankind endangering of the specific disposition of ‘nature’ in which human life seems possible, question the hegemony of this mode of production, in which the object hood of visual art is profoundly inclined. My point is that dance as well as singing – as traditional artistic media – could be a paradigm for another mode of production which stresses transformation of acts instead of transformation of material, continuous involvement of the present with the past in creating further presents instead of an orientation towards eternity, and simultaneity of production and deproduction instead of economics of growth.

26

27

현대미술의 총아로 떠오르는 런던 작가 티노 세갈, 현대무용과 정치경제학에 조예 깊은 그는 어떠한 유형의 사물을 제작하지도 않으며, 물질적인 흔적을 남기지도 않는다. 움직임을 기본으로 하는 한 순간의 동작, 퍼포머들에 의해 발화된 단어들, 그리고 이들간의 상호작용들, 이러한 한시적인 작업은 전통적으로 예술의 시스템을 정의하는 동격의 것들, 즉, 생각, 시각화, 독창성, 생산자, 관객, 소유자, 그리고 시장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 A part of text written by Tino Sehgal in 2002

티노 세갈의 작품 컬렉터이기도 한 제롬 벨이 세갈의 작업 지시에 따라 직접 퍼포머들을 오디션하고 교육한다. 5월 3일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7명의 무용수들은 3일 동안의 리허설을 거쳐, 5월 8일부터 4주 동안 전시·공연 한다.

오디션

5.3 목 5pm

리허설

5.3 목 - 5.5 토

공연

5.8 화 - 5.30 수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토탈미술관

안무가

제롬 벨

모집인원

7명

스프링웨이브 초청작

Courtesy by

Jérôme Bel

Represented by

Jan Mot, Brussels

Ahn Eun-Me Company *I Can Not Talk to You*

28

29



Photo © 최영모

안은미컴퍼니
말할 수 없어요
5.7 월 / 5.8 화 8pm
[전석 3만원]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극적으로 현란한 색채, 신명 가득한 수많은 동작들, 그리고 전통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양에서 서양에 이르기까지 안은미의 열정은 계속된다.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안은미는 무용의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 음악을 재해석하고 차용하며, 퍼포먼스와 인스톨레이션의 간극을 넘나들고, 더 나아가 멀티미디어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진정한 한국의 아방가르디스트이다.

그녀의 신작 <말할 수 없어요>는 현대사회의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한 여자의 눈물에서 시작하여, 각양각색으로 증식되어가는 여자들은 환영 받지 못한 미덕의 춤을 춘다. 그녀들의 몸짓은 눈물인가 하면 웃음이고, 어둠인가 하면 빛이고, 검은 폭력인가 하면 화려한 쾌락이기도 하다. 이러한 안은미의 패러독스는 모순적인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드러낸다.

안무
안은미
작곡
장영규
대본
임근준
무대디자인
권용만
조명디자인
장진영
의상디자인
안은미
의상
김윤관
사진
최영모
기록
지화춘
출연
안은미, 임현애, 손주연, 김한금,
민수경, 김선미, 이은실, 배유리,
천조출연
고홍균, 정영민, 강태석, 남현우,
정완영
음악
정은혜, 강지은, 나원일, 이희문,
안이호, 박민희

스프링웨이트 제작

Ahn Eun-Me Company
I Can Not Talk to You
5.7 Mon / 5.8 Tue 8pm
[all tickets 30,000 won]
Seoul Arts Center, Jayu Theater

Ahn Eun-Me's passion continues through iridescent colors and dynamic movements, from traditional to contemporary, from the East to the West. Internationally renowned artist Ahn Eun-Me must be the true 'avant-gardist': she pushes the envelope of traditional dance and re-interpretes or appropriates music, blurs the boundaries of performance and installation, and explores the diversity of media art in her works.

Her new work, *I Can Not Talk to You* is about the communication in the modern world. It starts with tears of a woman and multiples into diverse forms of oppressed women. Their movements keep ambiguities of tearful and laughter, dark and light, violent and pleasure. These paradoxes suggest our portraits in this contradictory modern society.

Choreography
Ahn Eun-Me
Composer
Jang Young-Gyu
Writer
Lim Geun-jun
Set Design
Kwon Yong-Man
Lighting Design
Jang Jin-Young
Costume Design
Ahn Eun-Me
Costume Marketing
Kim Yun-Kwan
Photographer
Choi Young-mo
Document
Ji Hwa Chung
Performers
Ahn Eun-Me, Lim Hyun-Ae,
Son Ju-Youn, Kim Han-Keum,
Min Soo-Kung, Kim Sun-Me,
Lee Eun-Sil, Bae Yu-Ree
Assistant Performers
Ko Hyeung-Kyun, Jung Young-
Min, Kang Tae-Sug, Nam Hyun-
Woo, Jung Wan-Young
Music
Jung Eun-Hye, Kang Ji-Eun,
Na Won-Il, Lee Hee-Moon,
Ahn Yi-Ho, Park Min-Hee

EAGON 이컨마루

몬순 프로젝트

5.25 금

[무료]

시간, 장소 인터넷 공지

몬순 프로젝트는 아시아와 유럽의 다양한 장르에서 작업하는 작가들의 공동작업을 위한 레지던시 프로젝트로서, 유럽의 대표적인 레지던시 기관인 Les Laboratoires d'Aubervilliers (프랑스), Monty Antwerpen (벨기에), Hebbel am Ufer (독일), Spring Dance Utrecht (네덜란드), STUK (벨기에)등과 함께 스프링웨이브 페스티벌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아시아 플랫폼으로서의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몬순 프로젝트의 첫 행사가 스프링웨이브와 경기문화재단의 공동 주최로 작년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자리는 유럽과 아시아 7개국에서 온 총 16명의 아티스트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새로운 장소를 탐방하고, 즉흥연출, 질의응답, 워크샵, 프레젠테이션과 같은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된 프로그램이었다. 이질적 역사와 문화에서 파생한 그들의 다양한 예술정신이 공동작업이라는 상호교류과정을 통해 어떻게 승화될 수 있는지 그 결과물을 선보이고자 한다.

Monsoon Project

5.25 Fri

[free of charge]

Time and Location to be posted on the website

Monsoon is a meeting platform for European and Asian artists, that should enable them to enrich their research through discussion, collaboration and developing alternative ways of communication. The Monsoon platform will be defined in working together, not primarily through language, but through the mingling up of procedures and methodologies to instigate different modes of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The idea of Monsoon is that it is an evolutionary project, which will be developed throughout the further editions, in collaboration with European and Asian partner organizations.

30

UCIRA 프로그램

5.19 토

[무료]

시간, 장소 인터넷 공지

UCIRA(캘리포니아대학 예술 연구소[The University of California's Institute for Research in the Arts])와 스프링웨이브 페스티벌이 캘리포니아와 서울 두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동시에 개최하는 이 컨퍼런스는 새로운 미디어에 포커스를 맞춰 퍼포먼스, 공간, 소리와 다른 형식으로 형상화된 디지털 매개를 실험하고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예술 작업의 새로운 형식에 대한 넓은 영역을 제안한다.

31

UCIRA Program

5.19 Sat

[free of charge]

Time and Location to be posted on the website

UCIRA: ENVOY
[Seoul] Carole Kim / Hahn Rowe

[Berkeley] Sue Costabile / Jesse Gilbert
ENVOY is a live performance of a streaming visual and audio dialogue between Seoul, Korea and Berkeley, California, US. Long term collaborators Carole Kim and Jesse Gilbert will pair up with Oakland-based video artist Sue Costabile and New York-based musician/composer Hahn Rowe to create this spontaneous mix of local and remote media. This will be presented by the Spring Wave Festival in Seoul and the UCIRA State of the Art conference in Berkeley, California, US.

스태프

파트너 / 장소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LIG 아트홀
로댕갤러리
토탈미술관

후원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프랑스대사관
Cultures France
이탈리아대사관
루프트한자

협력기관

이탈리아문화원
프랑스문화원
독일문화원

협찬

LIG손해보험
SK Telecom
(주)마리코

스프링웨이브 운영위원회

국제운영위원
이반 사피 (레 라보라투와르 도베르 빌리에 디렉터, 프랑스), 제롬 벨 (안무가, 프랑스), 프리 레이센 (쿤스텐 데자르 페스티벌 디렉터, 벨기에), 안 데메이스터르 (데 아펠 재단 디렉터, 네덜란드), 탕 푸쿠엔 (비평가, 싱가포르), 프랑크 고드로 (르 콩소르시움 디렉터, 프랑스), 김승덕 (르 콩소르시움 해외 기획 디렉터, 프랑스)
국내운영위원
김남수 (평론가), 노준의 (토탈 미술관 관장), 손진책 (극단 미추 대표), 안은미 (안무가/무용가), 양정수 (한국예술 교육학회 회장 / 수원대 무용과 교수), 오정원 (영화사 봄 대표), 유진상 (계원예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 / 국제갤러리 디렉터), 윤정섭 (한국예술 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임근준 (아트인 컬처 편집위원 / 평론가), 장영규 (복숭아 공동대표 / 작곡가), 조민석 (매스스터디 대표 / 건축가), 최성민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 디자이너), 황지우 (한국예술종합 학교 총장)

스프링웨이브 페스티벌 팀

디렉터
김성희, 김성원
사무국장
정은미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배은아 (드라마투르기), 최원정
홍보 마케팅부
이명연, 이승은, 우현석, 오성운,
김하진, 오수정, 김승령
재원조성부
이은정
페스티벌운영 / 티켓관리부
허유정, 조영
이벤트
이재진, 안진주, 장욱영
기술지원
SMG TECH
기술감독 / 테크니컬 코디네이터
김지명
기술행정
김수영
무대감독
강필수, 김동석, 김남조, 배지연
음향
양석호, 김성익, 지승준, 김필수
소품
조윤형, 강은미, 박신영
인쇄물/웹사이트 디자인
슬기와 민
웹사이트 구축
(주)컬처엔파트너스, 아이뷰 솔루션
외국어 번역/감수
김엘리사, 성무량

Credit

아르코예술극장 스태프

서정애 (극장장) / 박영범 (시설) / 조미숙 (대관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 조형준 (수석공연기획) / 김현희 (홈페이지 및 티켓관리) / 권진희 (하우스매니저) / 최형오 (무대기술 총감독) / 천원욱, 김예곤, 이동선, 전태식 (무대) / 신호, 이인연, 진용남 (조명) / 김동수, 도명호, 홍승욱 (음향) / 인턴: 윤혜영·강선애 (공연운영기획), 김호진 (하우스매니저), 윤민호·주거환 (조명), 도성중·최해은 (무대), 배형우 (음향)
LIG 아트홀 스태프
김병현 (부사장·극장장) / 조성주 (공연팀·팀장) / 장진아 (음악담당) / 강민정 (공연담당) / 문원섭 (기술감독) / 이동진 (조명감독) / 박범진 (음향감독)

Springwave Board

International Board Members
Yvane Chapuis (director, Les laboratoires d'Aubervilliers, France), Jerome Bel (choreographer, France), Frie Leysen (director, Kunsten FESTIVALdesArts, Belgium), Ann Demeester (director, De Apol Foundation, The Netherlands), Tang Fu Kuen (critic, Singapore), Franck Gautherot (director, Le Consortium, France), Seung Duk Kim (international project director, Le Consortium, France)
National Board Members
Kim Nam Soo (critic), Noh Joon Eui (director,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ohn Jin Chaek (director, Michoo Company), Ahn Eun-Me (choreographer, dancer), Yang Jung Su (director, Korean Association of Arts Education / prof. University of Suwon), Oh Jung Wan (director, Bom Film Productions), Yoo Jin Sang (prof. Kaywon School of Art & Design / director, Kukje Gallery), Yoon Jeong Seop (prof.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 Lim Geun-jun (editor at large, Art in Culture / critic), Jang Young gyu (co-director, Bok Soong Ah / composer), Cho Min Suk (partner, Mass Studies / architect), Choi Sung Min (prof. University of Seoul / designer), Hwang Chi Woo (president,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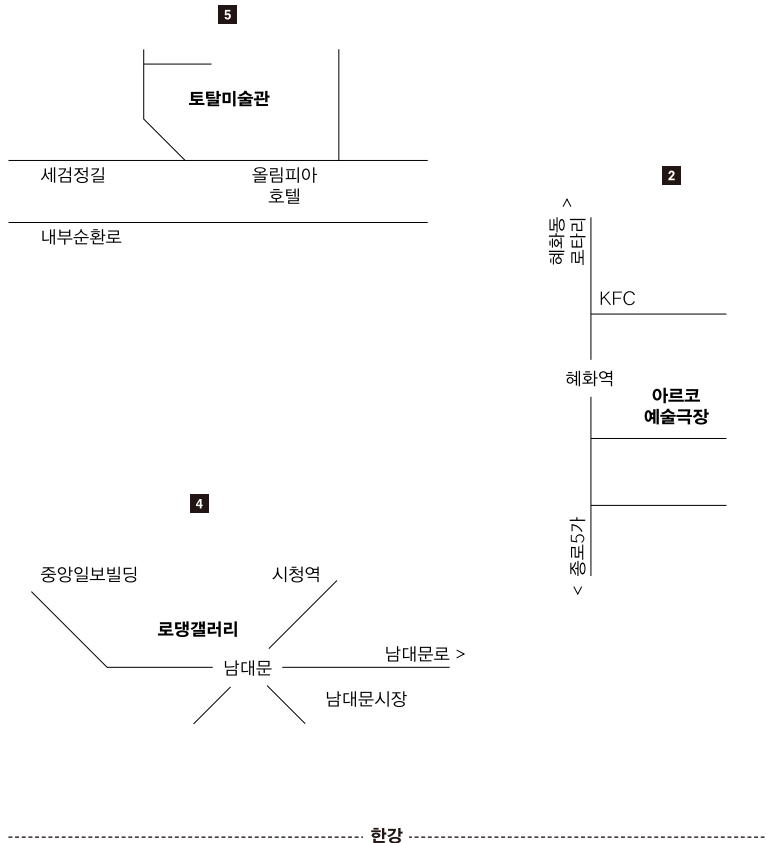
Springwave Festival Team

Director
Kim Seong-Hee, Kim Sung-Won
Vice-director
Jung Eun-Mi
Program Coordinator
Bae Enna (Dramaturgie), Choi Won-Jung
PR & Marketing
Lee Myung-Yeon, Lee Seung-Eun, Woo Hyeon-Seok, Oh Sung-Woon, Kim Ha-Jin, Oh Soo-Jung, Kim Seung Myoung

Fund Raising

Lee Eun-Jung
Management / Ticket
Hur Yoo-Jeung, Cho Young Event
Lee Jae-Jin, Ahn Jin-Joo, Chang Ok-Young
Tehcnical Support
SMG Tech
Technical Supervisor
Jimmy Kim
Technical Administrator
Kim Soo-Young
Stage Manager
Kang Pil-Soo, Kim Dong-Suk, Kim Nam-Jo, Bae Ji-Yeon
Sound
Yang Suk-Ho, Kim Sung-Ik, Ji Seung-Joon, Kim Pil-Soo
Props
Jo Yun-Hyung, Kang Eun-Mi, Park Shin-Young
Printed Matter / Website Design
Sulki & Min (www.sulki-min.com)
Website
Culture & Partners Co., Aiview Solution
English Translation / Consultant
Alyssa Kim, Claire Sung
Arko Arts Theater
So Chong-Ae (Intendant Director); Park Young-Bum (Facility Supervisor); Cho Mi-Sook (Program Coordinator); Cho Hyung-Jun (Manager); Kim Hyun-Jin (Homepage / Tiket); Kwon Jin-Hee (House Manager); Choi Hyoung-O (Technical Director); Cheon Won-Wook, Kim Ye-Gon, Lee Dong-Sun, Jin Tai-Sik (Stage Manager); Shin Ho, Lee In-Yeon, Jin Yong-Nam (Lighting Designer); Kim Dong-Su, Do Myeong-Ho, Hong Seung Uk (Sound Engineer); Intern: Yoon Hae-Young · Kang Sun-Ae (Performance Management); Kim Hyo-Jin (House Manager); Yoon Min-Ho · Ju Kue-Hwan (Lighting Designer); Do Sung-Jong · Choi Hae-Eun (Stage Manager); Bae Hyung-Woo (Sound Engineer)
LIG Art Hall
Paul B. H. Kim (S. E. Vice President / Executive Director); Seong-Joo Joh (General Manager); Jin-Ah Chang (Manager / Programming & Marketing); Min-Jung Kang (Manager / Marketing & Management); On-Ceup Moon (Technical stage manager); Dong-Jin Lee (Lighting director); Bum-Jin Park (Sound director)

위치안내



32

33

문화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ES
FR
C
D
V
P
L
Y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The Embassy of Italy

Lufthansa

주한 이탈리아문화원
www.licceoul.ester.it

Centre Culturel Français
프랑스문화원

GOETHE-INSTITUT
KOREA

1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T. 02 580 1300
www.sac.or.kr
— 제롬 벨, 안은미컴퍼니, 라이몬트 호계

2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서울시 종로구 동승동 1-130
T. 02 760 4877
artstheater.arko.or.kr
— 로메오 카스텔루치, 홍성민

3 LIG 아트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9-11
T. 02 6900 3900
www.ligarhall.com
— 김형민, 한 로우, 어어부 프로젝트, 크리스티앙 리쵸

4 로댕갤러리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50번지
삼성생명빌딩 1층
T. 02 2259 7781-2
www.rodingallery.org
— 윌리엄 포사이스

5 토탈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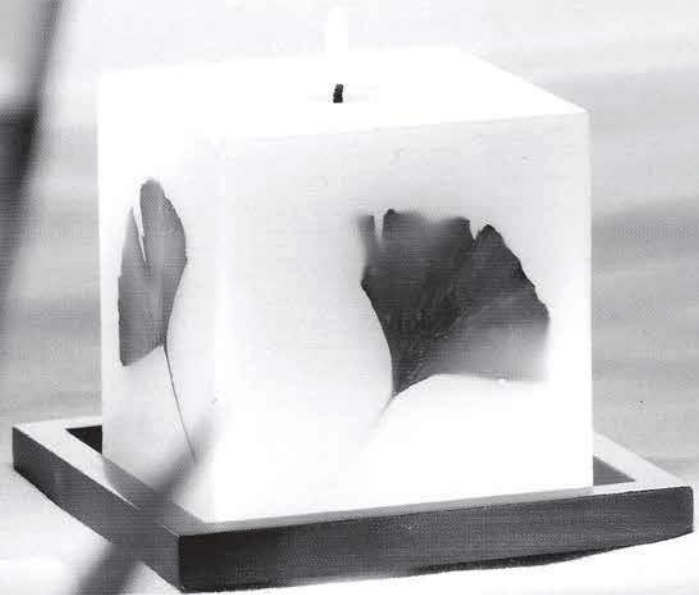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65-16
T. 02 379 3994
www.totalmuseum.org
— 나디아 로로, 티노 세갈

Arts change the world

예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www.arko.or.kr

The Mary Cohr Universe
New Aromatherapy Cosmetics



MARY
COHR
PARIS

SK telecom



당신의 개성은
이미 3G+가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무어라 하던, 항상 단당하고 자신있는 당신의 개성-
이미 3G+는 그런 당신의 멋진 모습들을 라이브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것을 라이브로 발신할 수 있는 세상 - Live on 3G+

3G+란? 제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이며 발신하는 MMS의 속도를 현존 더 앞선 3G+로 높여 (Video Downlink Packet Access) 기동도 고속화 및 영상화, 고화질 데이터 전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3세대보다 발전 3.5세대 이동통신 기술입니다.
3G+ 영상전화 / 3G+ 고화질 동영상 / 3G+ 클로버링서비스 / 3G+ 멀티 ACCESS / 3G+ USIM 서비스

Live on
3G+

스프링웨이브 페스티벌 티켓정보

일반티켓 [인터넷 예매]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제롬 벨 안은미 라이문트 호계	전석 3만원
아르코예술극장	로메오 카스텔루치 홍성민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전석 1만원
LIG 아트홀	김형민 한 로우 어어부 프로젝트 크리스티앙 리쑈	전석 2만원 무료
로댕갤러리	윌리엄 포사이스	2만원
토탈미술관	나디아 로로 티노 세갈	퍼포먼스·설치 관람 1만원 (5.9 수 / 5.10 목) 일반 관람 무료
기타 장소	김상화 몬순 프로젝트 UCIRA	무료

패키지 할인 [인터넷 예매]

자유롭게 개수 지정
2개 총 가격의 10%
3개 총 가격의 20%
4개 이상 총 가격의 30%

단체할인 [전화 예매]

10인 이상 단체는 20%할인

티켓 구매 방법

일반티켓 / 패키지티켓: 인터넷 예매

www.springwave.org

단체티켓: 전화예매

스프링웨이브 페스티벌 사무국

Tel. 02 725 1164-5

입금계좌번호

하나은행 278-810452-46707

(예금주: 정은미)

문의

스프링웨이브 페스티벌 사무국

Tel. 02 725 1164-5

Fax. 02 725 1175

info@springwave.org

www.springwave.org

스프링웨이브 프렌즈

스프링웨이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멤버십 자격이 주어집니다.

혜택:

- 스프링웨이브 페스티벌 발행물과 정보를 가장 먼저 우송해 드립니다.
- 스프링웨이브 패키지 티켓을 최고의 좌석으로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www.springwave.org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